프랑스가 최근 미래 전술용 공대지미사일 사업의 하나로 헬기에 장착할 상층·장거리미사일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되는 상층·장거리미사일은 기존의 헬파이어 II를 대체하며 헬파이어보다 탑재 중량이 훨씬 적어 임무수행 시간의 향상을 가져올 전망이다. 미 육군에서는 그레이 이글 항속거리연장 모델(MQ-1C ER)에 장착된 전자전 재밍 포드(Pod)의 시연이 있었다. 또 미 텍스트론 시스템은 자사 무인차량(UGV) 립소 M5 전기화 추진과 더불어 전기화 실험 플랫폼을 내년에 미 육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샤르 6급 초계전투함 'INS 마겐함'이 독일에서 3년에 걸친 건조작업을 마친 뒤 이스라엘로 이동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임채무 기자

프랑스 상층·장거리미사일 개발에 MBDA사 선정

타이거 HAD Mk III 공격헬기 장착…2028년 납품

프랑스 정부는 최근 자국 병기본부가 추진하는 미래 전술용 공대지미사일 사업의 하나로 상층·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의 미사일 개발 회사인 MBDA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상층·장거리미사일은 프랑스 육군이 보유한 타이거 HAD Mk III 공격헬기에 장착되며, 이에 대한 작업은 2023년 시작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은 현재 타이거 HAD 헬기에 장착된 유도형 공대지 주무기 체계인 헬파이어 II 미사일을 대체한다.

지난달 13일 프랑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미래 전술용 공대지미사일 결정을 발표하면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층·장거리미사일처럼 개량형 타이거 HAD 헬기에 거의 완벽한 미사일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층·장거리미사일 500발을 개발·생산하는 계약을 MBDA와 연말까지 체결하고, 2026년 품질인증을 거쳐 2028년부터 납품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를리 국방장관은 또한 프랑스 군이 운용 중인 타이거 HAD 헬기가 2050년까지 계속 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향후 우리 조종사가 상층·장거리미사일을 타이거 헬기에 장착하기 전, 이에 대한 전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뮬레이터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상층·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의 미사일 개발 회사인 MBDA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사진은 타이거 HAD Mk III 공격헬기에서 발사되는 상층·장거리 미사일 예상도. 출처=janes.com

미래 전술용 공대지미사일 사업의 하나로 상층·장거리미사일 신형 발사기를 개발할 예정이지만, 발사기 개발이 최초 계약에 포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파악했다.

이 신형 미사일은 MBDA가 프랑스 육군을 위해 개발한 140㎜ 구경 중거리미사일의 사거리 및 능력을 개선한 형태지만 일부 공통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MBDA는 상층·장거리미사일 기술에 대한 구체적 세부내용의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제인스는 상층·장거리미사일은 구경이 148㎜, 길이가 1700㎜ 미만, 중량이 약 40㎏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파를리 국방장관은 "상층·장거리미사일의 또 하나의 강점은 가벼운 중량으로 발사기 및 미사일 4발의 중량이 200㎏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의 탑재 중량이 훨씬 적어진 덕분에 타이거 헬기가 더욱 적은 연료를 소모하면서 더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육군, 그레이 이글 항속거리연장 장착 전자전 재밍 포드 시연

록히드마틴 체계 제작…여단편제 전자전 자산

미 육군이 최근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의 항속거리연장 모델인 MQ-1C ER에 장착한 전투여단용 공중전자전 재밍 포드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시연을 보인 재밍 포드는 2022년에 배치될 예정인 다기능 공중전자전(MFEW) 대형 포드로, MQ-1C ER에 설치된 육군의 첫 번째 여단편제 전자전 자산이다.

이 포드는 이번 시연에서 처음으로 MQ-1C ER에 장착돼 전자공격 기법 및 전자지원 탐사수집에 대한 지상기반 전자기식 호환성 시험 등을 받았다. 현재 포드에 대한 육군용 체계 제작은 록히드마틴이 추진하고 있으며 록히드마틴은 2단계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 1월에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와 함께 미 육군은 회전익 체계용 다기능 전자전 드론과 더욱 크기가 작은 무인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기능 전자전 드론 개발은 현재 30개월간 추진되는 2단계 작업 중 1단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미 육군이 최근 전자전 재밍 포드를 시연한 무인공격기 그레이 이글 항속거리연장 모델(MQ-1C ER)의 모습. 출처=c4isrnet.com

미 텍스트론이 전기화를 진행하고 있는 립소 M5 무인지상차량의 모습. 출처=janes.com

미국 전기 무인지상차량 개발

립소 M5 실험 플랫폼 美 텍스트론 내년 인도

미 텍스트론 시스템이 최근 자사의 무인지상차량 립소 M5를 전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텍스트론 시스템은 2021년에 립소 M5의 전기화 실험을 위한 플랫폼을 미 육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인도되는 플랫폼은 하이브리드 및 전기플랫폼(M5-E)을 비롯해 중형로봇전투차량(RCV-M) 4대로 알려졌다.

플랫폼은 텍스트론의 자회사인 하우앤하우의 무인차량(UGV) 및 특수차량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다. 앞으로 텍스트론은 하이브리드·전기 구동방식을 사용하는 플랫폼의 충전효율과 충전속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화된 립소 M5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가 필요 없으며, 900마력의 전기모터 2개와 디젤 레인지 익스텐더가 장착된 기본 모델(M5)과 출력이 같다.

이스라엘 최신형 샤르 6급 초계전투함 인수

독일서 건조작업…배수량 1900톤·전장 90m

이스라엘 방위군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 샤르 6급 초계함인 'INS 마겐함'이 독일에서 3년에 걸친 건조작업 완료 후 이스라엘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함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이 이스라엘 해군을 위해 건조하고 있는 초계함 4척 중 하나다. 계약은 지난 2015년 5월 체결됐으며 설계 단계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첫 번째 함정의 착공식이 거행됐다.

이 함의 설계는 독일이 건조한 MEKO 100 초계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함정에는 이스라엘 업체들이 함정의 전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한 센서 및 무기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제원을 살펴보면 만재 배수량은 약 1900톤, 전장은 90m이며 최고속도는 26노트, 최대 순항거리는 2500해리다. 무장은 오토 멜라라사의 76㎜ 주포 1문, 타이푼 무장장치 2대, 바락-8 함대공 미사일용 수직발사 16셀, C-돔 방공체계용 40셀, EL/M-2248 MF-STAR AESA 레이더, 324㎜ 어뢰발사대 2조 등이다. 또 함정에는 중형 SH-60 헬기 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가 설치돼 있다.

독일에서 3년간 건조작업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이동 중인 샤르 6급 초계전투함 'INS 마겐함' 모습. 출처=navyrecognition.com

자료 제공=글로벌디펜스뉴스